

#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 TEXTILE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포용의 색' 팬톤, 2024 올해의 컬러 '피치 퍼즈'<sup>(1)</sup>

글로벌 색채 기업 '팬톤(PANTONE)'이 2024년 올해의 컬러로 부드러운 복숭아톤의 '피치 퍼즈(Peach Fuzz, 13-1023)'를 선정했다. '진심이 담긴' 복숭아 색조는 몸과 마음, 영혼을 풍요롭게 포용하는 색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강조한다. '피치 퍼즈'의 주요 키워드는 진심 어린, 친절한, 부드러운, 아늑한, 벨벳 같은, 포용하는, 풍요로운, 다정한 등을 내포한다. 팬톤스러움이 가중된 시기에 부드러운, 공동체, 편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컬러로서 2024년을 대표할 컬러로 선정되었다. 팬톤은 '피치 퍼

즈'가 따뜻하고 아늑한 색조로 촉각을 자극하는 색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혼란한 매일수록 다른 '사람을 만지고' 집으로 모을 수 있는 촉각을 통한 자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팬톤컬러의 리트리스 아이즈먼(Leatrice Eiseman) 전무는 "우리는 삶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를 보살피는 색상이 필요하다"며 "핑크와 오렌지 사이에 부드럽게 자리잡은 '피치 퍼즈'는 소속감을 가져오고, 차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에게 존재함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Color of the Year 2024

PANTONE®

Peach Fuzz 13-1023



과연자가 만드는 사스테이비플 브랜드 '판가이아'

## TEXTILE '판가이아', 지속가능한 의류 라인 위해 PEF 인수<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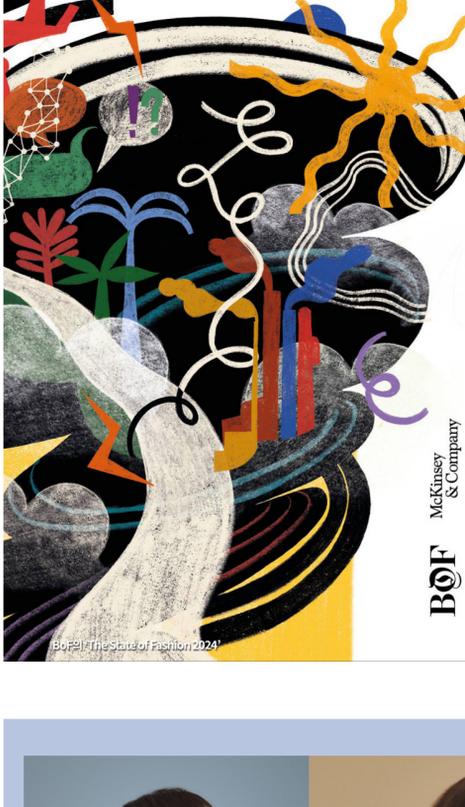
2024년 100% 식물성 재활용 소재 사용 상용화

대표적인 서스테이너블 패션 브랜드 '판가이아(Pangaia)'가 재생 화학 분야의 기술 업체인 아반티움(Avantium)과 제휴해 화학 연료가 없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 상용화에 나섰다. 아반티움의 폴리에틸렌 푸라노에이트(polyethylene furanoate, PEF)는 100% 식물 기반의 재활용 가능한 폴리머이다. 아반티움은 지난 1년 동안 패션 산업을 위한 섬유 및 원사용 PEF 개발에 집중했다. PEF 기반 섬유는 화학 연료에서

추출한 합성 섬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으며 기존 시설을 사용해 재활용할 수 있다. 아반티움은 전 세계 섬유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PET(폴리에스터) 섬유를 PEF 섬유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인 재료 사용으로 유명한 '판가이아'는 'PEF'의 B Corporation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새로운 지속가능한 의류 컬렉션에 PEF를 사용하기 위해 아반티움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

었다. PEF는 푸란디카복실산(FDCA)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아반티움은 네덜란드에 대규모 FDCA 플래그십 공장을 세우고 2024년부터 대규모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가이아'는 "PEF 기반의 의류가 패션 산업의 소비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아반티움과 협업해 다양한 제품으로 PEF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The State of Fashion 2024



McKinsey & Company  
BOF

## FASHION 2024 폭풍을 헤쳐 나갈 10가지 전략<sup>(3)</sup>

영국 패션 전문지 BoF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저성장일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oF가 맥킨지컨설팅과 함께 발표한 'The State of Fashion 2024'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패션 산업 리테일 매출 성장률 2~4%, 럭셔리 부문은 3~5% 성장을 전망했다. 또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유럽, 미국 패션 시장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BoF는 2024년 10대 패션 산업 아젠다를 발표하는 한편 '생성 AI', '지속가능성', '여행'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 2024 패션 산업 10가지 아젠다
- (1) 조각난 미래(Fragmented Future) \_ 불안한 세계 경제, 브랜드·리테일러·제조업자들 긴급 대책 강화
- (2) 기후의 긴급성(Climate Urgency) \_ 전 세계에 기후 위기 심화... 공급망 탄력성 구축,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
- (3) 휴가 모드(Vacation Mode) \_ 여행자를 위한 새로운 유통 채널 및 카테고리 전략 강화
- (4) 인플루언서의 새 얼굴(The New Face of Influence) \_ 창의적인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 (5) 아웃도어의 재창조(Outdoors Reinvented) \_ 기능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고프로어 강세
- (6) 생성 AI의 창의적 교차로(Gen AI's Creative Crossroad) \_ 인간 창작자의 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생성 AI 기술 활용
- (7) 패스트패션의 강세(Fast Fashion's Power Plays) \_ 쉬인(SHEIN), 테무(TEMU) 등 패스트패션 경쟁 치열
- (8) 브랜드 마케팅의 귀환(All Eyes on Brand) \_ 퍼포먼스 마케팅 대신 브랜드 마케팅 각광
- (9) 지속가능성 규칙(Sustainability Rules) -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제 강화
- (10) 공급망의 채찍효과(Bullwhip Snaps Back) \_ 공급 업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 개발



## FASHION 패션업계, 판매량 감소로 재고 자산 증가<sup>(4)</sup>

F&F, 한성, LF, 신세계인터 등 줄음이 증가

패션업계가 재고 자산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가가 높은 상품이 주로 팔리는 가을·겨울 시즌이 시작됐지만 예년보다 날씨가 춥지 않음에도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F의 3분기 재고 자산은 3,9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 늘었고, 한성은 6,522억원으로 17% 증가했

다. LF의 재고 자산도 14%,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재고 자산은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판매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는 않다. 통상 패션업계의 성수기라 불리는 10~12월이지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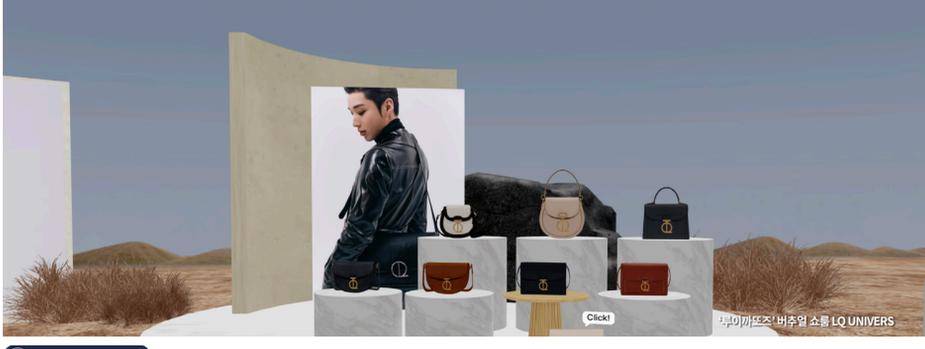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해 2월 성동구 답십리에 오픈한 '이랜드 스피드 오피스'의 역할을 키워 수요 맞춤형 생산으로 재고량을 낮추고 있다. 이랜드 스피드 오피스는 의류 발주부터 생산, 입고까지 모든 과정을 48시간 안에 진행하는 '2일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코오롱FnC는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사클러 패션'을 강조하며 재고를 줄이고 있다.

## 3D DIGITAL 2024, 디지털 패션 예측 TOP6<sup>(5)</sup>

패션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세상 확장

패션산업은 디지털 환경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물입형 커머스 플랫폼 tezda는 2024년 디지털 패션계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6가지 트렌드를 제안했다.

- 1. AI 기반 개인화**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어 검색 기록, 구매 행동, 소셜 미디어 참여 등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고도화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물입형 기술의 부상**  
AR, VR 등 물입형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경험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 3. 메타버스의 성장**  
패션 브랜드는 메타버스에서 존재감을 확립해 사용자가 탐색할 수 있는 가상 매장 및 물입형 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 4. 디지털 수집품의 인기 증가**  
브랜드가 한정판 가상 의류 및 액세서리를 NFT로 출시하면서 수집품으로서 디지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5.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디지털 패션 아이템을 위한 구독 기반 서비스, 가상 의류를 위한 임대 플랫폼, 공동 디지털 패션 마켓플레이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다.
- 6. 디지털 패션의 지속가능성 증가**  
디지털 패션은 제조, 운송,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기에 실제 의류 제품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3D DIGITAL '루이까또즈', 버추얼 쇼룸 LQ UNIVERS으로 초대<sup>(6)</sup>

패션테크 기업 팜피, 코미디와 협업 프로젝트 진행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루이까또즈(LOUIS QUATORZE)'가 디지털 콘텐츠와 믹스한 오픈이 '루이까또즈'를 전개하는 크리에이션엘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경콘진)과 협업해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T콘텐츠 크리에이터 업체 팜피(FAMPPY)와 3D제작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신상품 컬렉션을 비치한 'LQ UNIVERS' 버추얼 쇼룸(Virtual Showroom)을 만들어 가상의 매

장에 입장한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 고객들을 '루이까또즈'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했다. 이곳에서 곳곳에 숨은 퀴즈를 풀면 할인 쿠폰을 획득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팬톤컬러의 리트리스 아이즈먼(Leatrice Eiseman) 전무는 "우리는 삶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를 보살피는 색상이 필요하다"며 "핑크와 오렌지 사이에 부드럽게 자리잡은 '피치 퍼즈'는 소속감을 가져오고, 차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에게 존재함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고 있다. '루이까또즈'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진행한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은 디지털 콘텐츠·실감 기술 및 콘텐츠 개발사를 연계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 판로 개척 사업이다. 크리에이션엘은 경콘진과 협업을 시작으로 브랜드 홍보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루이까또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SOURCING JOURNAL \_ Meet Peach Fuzz, Pantone's Color of the Year for 2024, 23년 12월 7일  
(2) JustStyle \_ Pangaia snaps up Avantium plant-based PEF for sustainable apparel line, 23년 12월 1일  
(3) BOF \_ The State of Fashion 2024: Riding Out the Storm, 23년 11월 29일  
(4) 서울경제 \_ 더 추운 겨울... 패션업계, 재고 자산 더 늘었다, 23년 12월 4일  
(5) Tezda \_ Top 6 Digital Fashion Predictions for 2024, 23년 12월 4일  
(6) 디토렌도 \_ '루이까또즈' X '경콘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23년 12월 10일